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윤 영 응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in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윤 영 응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윤 영 응

윤영웅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권해수</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택호</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지현</u>	(인)

2017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7
II. 이론적 배경	8
A. 내현적 자기에	8
1. 자기에 개념	8
2. 자기에 분류	10
3. 내현적 자기에 특징	12
B. 이성관계불만족	14
1. 이성관계불만족의 특징	14
2. 내현적 자기에와 이성관계불만족	15
C. 평가염려 완벽주의	16
1. 완벽주의 개념	16
2.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징	19
3.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21
4.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	22
D. 내현적 자기에,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	24

III. 연구 방법	25
A. 연구 대상	25
B. 측정 도구	25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25
2.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	26
3. 이성관계불만족 척도	28
C. 연구 절차	29
D. 분석 방법	29
IV. 연구 결과	30
A. 기술통계	3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31
2. 상관관계 분석	32
B. 내현적자기에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 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33
C. 내현적자기에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 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34
1. 실수에 대한 염려 매개효과	34
2. 수행에 대한 의심 매개효과	36
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38

V. 결론 및 논의	40
A. 논의 및 결론	40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43
【참고문헌】	45
【부 록】	55

표 목 차

<표 1>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27
<표 2> 이성관계불만족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28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4>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31
<표 5> 측정변인 및 요인간의 상관관계	32
<표 6>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33
<표 7>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매개효과 검증 결과	35
<표 8>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 매개효과검증 결과	37
<표 9>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39

그림 목 차

-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 34
- <그림 2>.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의 부분 매개효과 36
- <그림 3>.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의 부분 매개효과 37
- <그림 4>.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 39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in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Yoon Yeong Woong

Advisor : Prof. Kim Tack-ho,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450 men and women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wangju. I used questionnaires as a tool : Covert Narcissism Scale,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Scale,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3.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relevan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vert Narcissism,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mediated partially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Third,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the sub-factors of Evaluate concerns(Concerns About Actions, Doubts About Actio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ediated partially.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so that it should understand psychological traits of Covert Narcissist and gives implication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nclu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바야흐로 자기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각종매체들과 사회 속에서 장려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률이 2014년에 비해 0.03명이 증가하였지만 1.24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 혹은 두 명의 자녀만을 출산하여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아이들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자기애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미포머족(Meformer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나(Me)라는 단어와 알리다(informer)가 결합된 단어로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각종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에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감정이나 순간적인 느낌을 작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중요한 자기애적인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기애 성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Lasch(1979)는 개인주의, 자기 본위 시대,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면서 현대 사회를 자기애의 시대라고 하였다. 한국 사회는 상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우리’가 강조되고 나의 행복보다 국가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고수했던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에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고(배규환, 2002),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나은영, 2010).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격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사용하여 자기애를 측정 한 1999년에서 2014년의 논문들을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은 15년간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선경 외, 2014). 이는 기존의 집단주의적 가치관 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기애 성향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우 적응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개인이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인 속성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강선희, 정남운 2002). 그러나 적응적인 모습을 자기애자들이 보여주는 듯 해도 내적으로는 병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Kernberg, 1985), 웅대한 자기개념 과 취약한 부분이 함께 있다(정남운, 2001). 자기애 성향을 과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감을 경험하고,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표현양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서 DSM-IV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기준에 일치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자기애적인 속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며 웅대한 자기와 과장되고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타인에게 자신의 웅대성에 대한 인정과 찬사를 원하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의 관찰되는 모습은 자기애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면에는 자기개념의 웅대성이 억압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에 매우 민감하거나 수줍음을 타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거나 눈에 띄는 것에 불편해 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쉽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2000).

선행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더 부적응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애가 가장 크게 손상을 받는 영역은 대인관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현적 자기애 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타인을 각자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권석만, 한수정, 2000),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 해버린다.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불안정하고 피상적으로 맺는 특성이 있고, 타인을 수단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이 부자연스럽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과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춰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권석만, 한수정, 2000).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거절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Hendin & Cheek, 1997). 또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심도있는 관계를 맺는 이성관계에도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한다(박준영, 2007; Campbell, 1999).

초기성인기에 해당되는 청년기의 미혼 남녀에게 있어서 이성교제는 발달 과업상 중요하다(김경란, 1993).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영역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Hazan & Shaver, 1987), 특히 초기성인기 시기에 이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도 하고, 한계를 수용하기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에 이성관계 경험은 미혼남녀에게 성취해야 중요한 과업으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강조되어 왔고(Cole, 1948; Erikson, 1968; Levinson, 1978), 청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성관계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elly, Huston & Cate 1985; Spanier & Lewis, 1980). 따라서 이성관계 경험은 단편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친밀하고 원활한 이성관계는 그 속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권석만, 1997), 원만한 이성관계가 형성 되지 못했을 경우 우울, 좌절, 고독 등과 같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이복동, 2000). 김미선(2014)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거부에 민감해 지며 분노표출을 유발하게 되어 이것이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최선우(2010)의 연구에서는 이성간의 갈등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적절한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여 갈등상황에 대하여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성관계에서 내현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성에게 다소 집착하는 형태의 관계와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이성관계에 부적응적인 면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성관계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나 대인관계나 이성관계 속에서 더 부적응적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적이고 만족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만족감을 덜 느끼고, 불만족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시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성격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개입으로만 다루기 어렵다(권은미, 2006). 그리하여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 이성관계속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평가염려완벽주의를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의 앞서 제시한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함은 완벽주의자들이 결과나 성취를 통하여 타인들의 인정과 승인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김현정, 손경량, 2007; Frost, 1993, Hweit & Flett, 2002)과 자기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수치심을 느끼는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Burns, 1980).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 성향 중 부적응적인 면을 포함하는 완벽주의로써,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며 이상적인 자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자기와의 차이가 커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강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한 신랄한 비난과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이 짙다. 또한 이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수많은 성공 끝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성공 경험에 대한 생각보다는 실수와 실패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되는 과잉 일반화를 하게 되고 수행에 대한 의심과 자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로인한 두려움으로 늘 자기비난적인 상태로 있기 쉽다(안신혜, 2009).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 경험들을 다루는 데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큰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울, 불안에 취약하다 볼 수 있으며(김현아, 2013),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자기 노출을 어렵게 만든다. (Davis & Franzoi, 1987). 여기서 자기 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감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대인관계와 이성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며,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으로 머무르게 되어버린다(Blatt & Zuroff, 1998).

_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요 매개변인으로 선정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김미선, 2013), 부적응적 자기제시(강보영, 2014), 관계진술성(김지민, 2015)이 있다. 강보영(2014)의 연구에서 언급한 부적응적 자기제시는 인상관리의 일종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인상을 통제 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Leary & Kowalski, 1990). 인상관리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제시하는 인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평가는 이후 개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성관계에서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김지민(2015)은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는데, 관계진술성은 허물없이 밀접한 두 삶의 상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

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Lopez & Rice, 2006; 최바울 외, 2013 재인용).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대의 감정과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는 손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경험을 관계속에서 타인이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김미선(2013)은 거부민감성이 다양한 대인 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될 것이라고 불안한 기대를 가지며 거부를 항상 예민하게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인지-정서적 과정을 통해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서도 불만족을 유발시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타인이나 대상을 향하여 신체적 행위, 욕설, 언어적 표현을 통해 표출이 되거나 화가 나도 드러내지 않고 분노를 억압하거나 분노를 일으킨 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기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 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나타내는 대학생이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연인관계에서 보이는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었고 그리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지 더 살펴보고자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함께 하위변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이성관계에서 불만족을 유발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주로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한다고 보고하는데 정서중심 대처는 주로 역기능적인 대처양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서적 고통에 초점을 두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면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Blankstein & Dunkley, 2002; Flett, et al., 1996). 이는 이성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적인 고통에 초점을 두게 되어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회피를 통하여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성관계불만족을 촉진 시키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들이 정서조절전략에 문제가 있어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Aldea와 Rice(2006)는 언급하였고, 김정화(2011)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염려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겪게 되어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 또한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비판이나 염려를 의식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친밀한 상호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이성관계불만족을 예언하는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 근거할 때, 내현적 자기애는 이성관계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통해 대학생의 이성관계불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언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학생들의 이성관계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의 치료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상담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는 이성관계불만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이성관계불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매개로 이성관계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3-1.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는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3.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내현적 자기에

1. 자기에 개념

자기에(narcissism)는 그리스 신화의 ‘Narcissus’에서 유래되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매혹적인 모습에 빠져들어 연못에 빠져 죽게 되는 이야기에서 생겨난 용어이다(권석만, 2013). 심리학 문헌들에서 자기에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Ellis에 의해서인데, 그는 자신이 치료하던 자기성애적인(auto-eroticism)남성의 사례를 기술하면서 나르시스 이야기를 꺼내며 설명하였다(권석만, 한수정, 2000).

Freud가 자기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기에는 정신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가 되어져 왔다. 그는 그의 저서 “On narcissism”에서 자기에를 설명하며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여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정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나 세상에 막 태어난 어린 존재는 자신과 외부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육체에 주어지는 감각에만 집중하여 경험을 형성해 나간다. 자신의 육체를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는 어린 존재는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고픔과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울게 되는데, 이러한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아이는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일차적 자기에(primary narcissism)’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과 외부세계에 대한 구분이 되고, 특히 부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여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게 되어 대상애(object-love)가 발달하게 되어 ‘이차적 자기에(secondary narcissism)’로 발전한다. 이처럼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는 타인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투여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 대상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사랑과 애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경험하는

성숙한 형태의 자기애를 발달시키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러나 Freud는 어떤 이유로든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가 고착될 경우 타인에게 향해야 하는 심리적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병리적인 자기애가 형성된다고 하였다(구정일, 유범희, 2010; 권석만, 한수정, 2000). Freud는 일차적 자기애 단계에 고착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Kernberg와 Kohut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Kohut(1977)은 자기애를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은 결핍과 그로 인한 보상적 구조와 방어로 인하여 병적인 자기애가 생겨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는 양육자와의 공생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전능하다는 자기애적 상태를 경험하고, 이 단계에서 아이는 웅대한 자기(grandiose and exhibitionistic self)와 이상화된 부모상 (idealized parent image)이라는 두 가지 축을 형성하게 된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애를 형성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각 축에 대한 과제가 수행되어야만 하는데 우선 과대적인 자기로 인한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 하는 것과, 이상화된 대상으로부터 안정감을 받는 경험을 통하여 현실세계에서의 좌절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아이는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응집력을 가진 자기를 얻게 되며, 이상화된 대상으로부터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이상화된 대상을 내면화 하여 자기 이상을 내면에 형성하고 삶을 사는데 있어 가치 있고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후 양육자는 아이의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양육자를 이상화한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양육자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아이는 이상화된 양육자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계를 깨닫게 된다.

Kohut은 이를 통하여 아이가 유아적 자기애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현실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개체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성숙한 자기애로 성장하게 되면 창조적이고 활기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창의성, 지혜, 공감, 유머와 같은 긍정적인 덕목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병리적인 발달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수행이 좌절되었거나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좌절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아이는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형성하고, 두 축에 대한 좌절이 있을 경우 자기애적 고착으로 빠지게 되고 병리적인 자기애로 나타날 수 있다. 병리적 자기애의 모습으로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빈약한 대인관계, 지나친 완벽의 추구하고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적인 사람은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양육자에 대한 유거나 상실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에 대한 방어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 아이가 양육자로부터 양육환경에서 관심과 공감을 충분한 만큼 받지 못하고 좌절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종합적 사고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장점만을 이상화하여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양육자에게 투사하여 양육자를 가학적이고 박탈적인 존재로 지각하게 되지만 양육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상적이고 좋은 부모상으로 품게 된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외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관심과 인정, 사랑을 끊임없고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자기애 성향을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라고 했다. 또한 외적으로는 적응적인 면모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병리적이어서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자기애의 분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II)에 정식적인 진단으로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DSM-III에서는 과도한 자기애 대한 몰두와 비현실적인 웅대한 자기상,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이후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이전 진단에 포함되어 있던 비판에 대한 부적 반응은 삭제하고 과장성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DSM-III에서 DSM-5에 이르기까지 주로 공격적이고 외향적인 측면에서 자기애가 진단되어 왔다.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자기애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긴 하지만, 유사한 심리적 역동과 정서적, 인지적인 특질을 지닌 또 다른 자기애적 병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Akhar & Thomson, 1982; Wink, 1991b). Kohut(1977)은 이상화 경향을 과하게 나타내는 자기애성 성격 유형과 웅대한 자기애성 성격 유형을 구분하여 두 유형의 각각의 기저에 대한 역동을 설명함으로써 두 유형으로 자기애를 구분 하였다.

이후에 여러 이론가 들은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과 ‘취약한 자존감(vulnerable self-esteem)’의 특성을 공유한다고 하였지만, 현상학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에 있어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였다.(Hendia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Wink, 1991b).

이러한 두 구분은 기존연구들의 자기애 척도들 간에 상호연관성이 부족하며 이들을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Hendia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b). Wink(1991a)는 6개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를 요인 분석함으로써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요인을 얻었고, ‘웅대성-과시성(Grandiosity-Exhibitionism)’과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Sensitivity)’으로 명명한 후에 각각을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 하였다. 후에 Rathvon과 Holestorm(1996)은 또한 MMPI-2에서 도출된 5개의 자기애 척도와 NPI를 요인분석을 하였더니 Wink의 결과와 일치하는 두 요인을 얻게 됨으로써 두 개의 자기애 유형으로 구분하여 명명한 Wink의 연구를 지지하게 되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공통적으로 ‘자기애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대로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에게 몰두되어있는 특징을 보이며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을 인식할 때 ‘자신의 위대함을 칭찬해주는 존재’로 여기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로 타인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타인을 독립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웅대한 자기상을 지니고 있고 자신들의 취약한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의 평가를 매우 민감한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체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부정적인 평가를 혹시나 받을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등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한다(정남운, 2001).

공통점에 이어 두 유형이 보이는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웅대하고 잘난 모습을 나타내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 내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며,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나 나쁘게 비추어 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에 상관없이 오만하고 자아도취적이라 할 수 있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려 하면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나타난 두 유형간 차이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의 업적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며,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타인의 비난이나 거절에 대해서는 타인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해 나간다.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전략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해 나간다.

3. 내현적 자기에의 특징

내현적 자기에에는 기존의 자기에의 유형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제시되었고, 내현적 자기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활발해 졌다고 볼 수 있다. Murray(1938)의 자기에 척도(Murray's Narcissism Scale)에서 Hendin과 Cheek이 문항 중에 내현적 자기에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만들었고, 이를 정남운(2001)이 과민성 자기에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했다. 그 후에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해서 본 연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개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는 겉으로 들어나는 모습은 소심하고 억제되고 무력해 보이지만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에의 핵심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며, 취약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웅대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고,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역기능

적으로 외부로 표현된다. 그들의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욕망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드러나고, 자기애적인 병리는 수동적이고 억제된 방어적 태도로 숨겨진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다.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감에 손상을 입힐 것 같고 위협적인 상황은 아예 회피해 버리고, 회피하지 못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타인의 반응과 표정을 민감하게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내현적 자기애의 자아강도의 부족을 나타내며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서 안녕감, 유능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과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피학적인 특성, 성인기 삶의 악화와 더 관련된다고 하였다(최혜정, 2009).

앞서 언급했듯이 내현적 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라는 비교적 일관적인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 간 일치도가 낮고, 더 높은 우울감을 보고 하면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나타내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보다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자기개념의 명료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였다(이준득, 2007).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권희영, 2010), 편집성향과 매우 흡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고은경, 2011) 이러한 특성들은 개인 내적에 부적응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더욱 더 병리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권영란(2002)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호의와 대우를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신을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다고 느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인숙(2002)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불안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도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자기애 성향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의 더 취약한 모습은 개인내적 부적응을 넘어 대인관계와 이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성관계에서도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라 여겨지므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B. 이성관계불만족

1. 이성관계불만족의 개념

이성관계는 미혼남녀간의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며 자연스런 만남으로부터 시작해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이성관계는 다른 관계와 비교하여 몇가지 특성을 보고 있다. 이성관계는 여타 다른 관계에 비해서 강한 감정의 상호작용이 동반되는 친밀한 관계이다. 이성관계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인간의 기본적인 낭만적 사랑의 욕구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권석만, 1997). 또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상대방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 관계보다 이성관계를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라고 언급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Bercheid et al., 1989). 김나리(2002)의 연구에서도 이성교제 대상이 인간관계 중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성관계는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인초기에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청년기는 원만한 이성관계를 위해서 이뤄야 할 중요한 심리 사회적 발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Erikson, 1968). 이 시기는 한 개인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성숙해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조인형, 김영희, 2009). 성인기 전반에 겪는 이성관계는 배우자 선택 과 결혼 만족, 결혼 이후의 생활양식 및 주관적 안녕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Gottman & Levenson, 2000; Kelly. Huston & Cate, 1985), 이성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에 영향을 준다(Kemper & Bologh, 1981; Reis, 1984; 우마이, 박준성, 전태영, 2008). 또한 이성관계 내에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보고도 있으며(Wilson-Shockley 1995) 이성관계 내에서 겪는 문제는 우울, 정서불안, 자살기도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높은 상관성이 있기도 하다(Brent et al.; 1993; Joyner & Udry. 2000; Wolfe & Feiring, 2000; 이지연, 서수균, 2011).

이성관계 만족이란, 남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매력이라고 정의되고

이성관계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태도를 의미한다(홍대식, 1998). 이성관계 만족은 이성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Bradburt et al, 2000). 이성관계 만족이 높은 남녀는 서로의 사랑과 돌봄으로 정서적인 힘을 얻으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며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서로 도움을 준다(Hendrick, 1983). 이성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갈등해결양식(Pistole, 1989), 자존감, 자기노출 및 헌식(Hendrick, Hendrick & Adler, 1988)등이 있고, 국내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관련성(김광은, 이위갑, 2005;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이복동, 2000), 관계진술성(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거부민감성(이복동, 2000), 갈등해결전략(강진희, 2011; 곽소영, 2007)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성관계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서 성격적 요인과 연관된 요인이 심각하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성격과 관련된 변인들과 이성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최선우, 2010; 최지현, 2011; 황영주, 2013),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내현적 자기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2. 내현적 자기에와 이성관계불만족

자기애 성향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적응성이 드러나지만 그 중 가장 역기능적인 영역은 대인관계이다(한수정, 1998). 자기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타인을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단적인 존재로 여긴다. 또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고 피상적이고 불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특성이 있다. 또한 타인을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상화를 하다가 이내 싫증을 느끼고 애정이나 관심이 식어버리기도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대인관계 양상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보다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들은 자기애적 성향을 설명하는, 즉 외현적 자기애적 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 양상과 다를 것이고, 이성관계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기애의 두 하위 요인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인 높은 응대성-과시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이성을 발견하였을 때 이성에게 헌신적이며 만족

스럽게 자신의 이성관계를 지각하였으며, 이상적 기준에 이성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이성관계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것으로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가 두드러지는 성향인 높은 과민성-취약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관계에서도 견고하지 못한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성에게 과민 반응하며 불편감을 경험하고,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여 관계를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우성범 외, 2012).

선행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최선우, 2010; 최지현, 2011).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이성관계에 집중하지만, 관계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이성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황영주, 2013).

이를 바탕으로 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일반인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에 비해서도 이성관계에서 불만족을 많이 느끼며, 역기능적인 면을 더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의 이성관계불만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C. 평가염려 완벽주의

1. 완벽주의 개념

완벽주의는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고 만족시킬 때까지 자신을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가치를 목표 달성과 성취를 통하여 평가하는 성향을 나타낸다(Burns, 1980). Pacht(1984)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성공이나 성취 같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신경증적이 된다고 하였다.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심리학적으로 가장 먼저 정의했는데 완벽주의를 정상적인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t)와 신경증적인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t)로 분류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는 힘들게 노력하며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상황이 허용될 때는 완벽해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한기연,

1994). 또한 자신과 타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실패했을 때에는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으며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이에 반하여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자는 실현하기 어려운 비현실성이 큰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일을 새로 시작하기 이전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주저하고 스스로 향상하는 욕구를 갖기 어렵다.

완벽주의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차원적 접근으로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이해했고 (Burns, 1980; Pacht, 1984),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비롯하여 섭식장애, 불면증, 자살사고, 공황장애, 강박증 등 수많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 Flett, 1991; Pacht, 1984). 90년대 들어 완벽주의자들의 부적응적인 문제가 단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문제, 사회적인 요인들과 관련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먼저,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인지, 행동, 발달적 측면에서 6개 차원으로 나눈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6개 하위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개인 기준, 조직화로 구분하였고 이는 개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지닌 다차원적인 시각의 접근이다.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는 실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되고 작은 실수를 해도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평가염려(Frost et al., 1990;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와 주로 관련된다.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은 자신의 능력과 수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는 자신에게 부여되는 부모의 높은 기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부모의 비판(parental criticism)은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개인 기준(personal standard)’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과 긍정적 자기개념을 포함한다. ‘조직화(organization)’는 완벽주의자들이 질서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6개 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염려’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평가염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울, 지연행동,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강박충동과 같은 다양한 병리적 증상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ost, et al., 1990).

비슷한 시기에 Hewitt와 Flett(1991)역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완벽주의의 행동이 어떤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벽주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이다. 이 척도는 3가지 척도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성되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지나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기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고,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과 평가가 타인에게 향한다. 타인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타인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적대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기대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신념과 관련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요시 하므로 실패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고, 타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고 비난을 피하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Hewitt & Flett, 1991). Hewitt와 Flett(1991)은 위에서 언급한 세 차원 모두 다양한 유형의 정신 병리의 지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일관되게 부정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 Rand, 2000).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변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를 하게 되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이 항상 자신이 하는 수행과 능력에 대해서 끝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타자가 자신에게 부여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김성주, 이영순, 2013). 이들은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불편감과 불쾌감을 빠르게 느끼며, 지나친 비판과 책망을 자신에게 부여하여 무가치감과 절망감을 쉽게 경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주로 자기인식, 자기가치, 자기 통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평가에 민감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염려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정적 정서에 취약해지는 특성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에서 고립되기 쉬운 모습을 보이고(Dunkley et al., 2000), 친밀한 관계가 더욱 전제 되어야 하는

이성관계에서는 더욱 취약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 중에 ‘실수에 대한 염려’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실수를 전반적인 실패로 여겨 수행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며, 타인도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Juster, Heimberg, Frost, & Holt, 1996).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사건의 전반적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내포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추측하게 되면서 더욱 높은 우울을 느끼게 된다(Di Schiena, Luminet, Philippot, & Douilliez, 2012).

2.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징

Dunkley, Blankstein, Halall, William 및 Winkworth(2000)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하위차원들을 요인 분석하여 재구성한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후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을 재구성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하위 차원들을 적응적, 부적응적 속성에 따라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두 가지 차원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완벽주의 구성개념을 찾기 위해 세 척도들 중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서은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재구성을 시도한 Blankstein과 Dunkley(2002)는 다른 요인들과 구분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적응적 특성에 해당되는 요인과 부적응적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을 발견하였고 각각 이들을 각각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구분 중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여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높은 수행수준과 자신의 현재 기술 및 능력 간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수에 대해 염려하고 자기 수행을 의심하면서 신랄하게 자신을 비난하며, 타인의 비판과 기대를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은경, 2011). 따라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이 가진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성취 지향적이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Flett, Russo, & Hewitt, 1994; Holahan, Moos, & Bonin, 1997). 하지만 김현희(2008)는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타인의 인정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자기를 감시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만족스러워하고, 타인의 비판과 기대에 대해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더 잘 경험하며, 자기 가치감이 취약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여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고독해 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Dunkley et al., 2000).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인해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연인관계에서도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또한, 실수에 한 염려 차원은 부정 정서를 증가시키고, 실수를 전반적인 실패로 해석하여 그들의 수행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키고 자기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ster et al., 1996).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징들은 일관되게 우울증상을 반영한다(Frost et al., 1993; Slade & Owens, 1998; Enns & Cox, 1999; Dunkley et al., 2000).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불쾌감을 느끼고(Dunkley & Blankstein, 2000)과도한 자기비난으로 낮은 자존감과 무 가치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Blatt, 1995). 특히 실패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타인의 기대를 변화시키거나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각한다(Flett, Hewitt, Blankstein, Solnik & Van Brunschot, 1996).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경험회피와 상관성이 높았다(김정은, 손정락, 2012; Santanello Gardner, 2007).

3.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에의 모습과 완벽주의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점점 더 짙어져 가며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에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불안, 공허, 불만족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상적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갈망한다. 이는 자기에 성향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이원희, 안창일, 2005).

Freud(1953)는 자기에적 행동 특징이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기 충분성, 완벽함에 대한 추구’를 들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자기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철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이와 유사한 특징이 보여지는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이 낮지만(Wink, 1991), 내면에는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가 추구하는 완벽주의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가 있는데 외현적 자기에는 긍정적인 완벽주의와 연관이 있지만, 내현적 자기에는 부정적인 완벽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설미향, 이운형, 2011; 이항순, 정남운, 2012).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가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더 잘 보여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보다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더 큰 관련성이 있었고, 외현적 자기에는 내현적 자기에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보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더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내현적 자기에와 완벽주의와 반추의 관계에서 상관분석을 한 김연신(2015)의 연구에서도 이들 변인 사이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아진다고 김현아(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외에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과 높아진다는 일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구현경, 2014; 이문선, 2014;

임원범, 2014; 정상호, 2016; 정형진, 2015). 김은혜(2009)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의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날수록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론적, 경험적 결과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외현적 자기애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지닌 평가 민감성은 완벽주의 중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민감하고 취약하여, 이상적 자기와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비교하여 실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완벽주의 성향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

현대사회에서는 더 잘 하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원하다 보니 관계나 일 등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성향이 강해지면 타인보다 자신이 탁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로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 하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이 열등 하다고 생각 한다(Burns, 1980). 완벽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들은 수행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감과 불안정감을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완벽하려는 태도를 선택하게 된다(Sullivan, 1953). 그래서 그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작은 허점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완벽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Burns, 1980). 이렇게 그들은 작은 문제도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부풀려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게 된다(손병화, 박경자, 1999). 자기 비판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속 모습은 결점이 많고, 부족하며,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타인에게 자기 노출을 하기보다

사회적인 가면을 쓰게 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Rogers, 1970).

완벽주의의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을 탐색하여 완벽주의자들이 체면을 살리는 행동과 자신들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대인관계측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Hamachek(1978)은 언급하였고, Hill 등(1997)은 완벽주의자들의 스스로 부과하거나 타인이 부관한 높은 기대가 완벽주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경우에 발생할 것 같은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과극화 경향은 완벽주의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예측하게 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이정운, 최정훈, 1994).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회피(Stein, Jang, & Livesley, 2002)와 낮은 자아 존중감(Kocovsko & Endler, 2000)을 발생하게 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이성관계에서의 문제도 예상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였고(임혜진, 1996; 이지영, 2007; 정옥경, 2000), 정옥경(200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높으면 낮은 사람보다 대인관계 문제에서 현신성, 지배성, 간섭성을 더 지각하였다.

그런데 완벽주의 성향이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많으나 경험적으로 살펴본 국내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도 부적응적인 면을 포함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대인관계 중에서도 더욱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이성관계의 불만족을 나타내는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D. 내현적 자기에,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하게 되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성관계를 통해 한 사람과 깊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욕구와 서로가 기대하는 역할을 학습하게 되고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김예정, 김득성, 1999). 그런데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해 의심이 높고(Kohut, 1977), 스스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려워하며, 타인을 자신의 가치감을 비추어줄 거울로서 수단화 하게 된다. 그런데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을 비추기를 기대하지만, 웅대한 자기상과 자신의 모습의 차이를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낮은 자존감이 버티지 못하고 완벽주의적인 행동양식을 보상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게 되며(Richard, 2007), 어떤 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이 수행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연인간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허점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파트너와 사고와 정서를 나눈 것을 피하게 되어 이성관계불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성관계불만족에 내현적 자기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현적 자기애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사고양식으로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가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통해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에서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변인으로서 작용을 예언해 볼 수 있고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남·여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응답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 남학생 139명(42.6%), 여학생 187명(57.4%), 총 326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B. 측정 도구

1.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m Scale; CNS)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측정도구는 Akhtar와 Thamsom(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해서 개발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대상을 비 임상적 집단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131개의 예비문항을 만든 후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45개의 문항을 완성하였다.

하위요인은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개의 공통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이다.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은 3개이며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평정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45~225 점으로 설정 되어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전체 내적신뢰도 계수는 .91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5이다.

2.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cale: ECPS)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중에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성으로 밝혀진 바 있는 하위척도를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과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포함하는데 김민선, 서영석(2009), 김정은, 손정락(201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하위요인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와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구분을 따랐다.

가. Frost 등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본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 및 ‘수행에 대한 의심’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정승진(1999)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 부모의 비난 4문항, 부모의 기대 5문항, 조직화 6문항, 개인기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와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의 하위요인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가 가져올 결과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실수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능력과 수행에 끊임없이 의심하여 특정 과제를 끝까지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함을 의미하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5점은 ‘매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한다. 역채점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박경(2004)의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과 .65로 각각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17과 .696로 나타났다.

나. Hewitt 등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4)이 번안하고, 이미화(2001)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15문항,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15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5점은 '매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고희경과 현명호(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7이었다.

<표 1>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실수에 대한 염려	9	1,2,3,4,6,7,8,9,13	.817
수행에 대한 의심	4	5,10,11,12	.69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5	14,15*,16,17,18,19*,20,21*,22,23,24,25*,26,27, 28*	.747
	28		.869

3. 이성관계불만족도

Snyder(1979)이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한 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표준화한 한국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만족를 측정하기 하여 권정혜, 채규만(1999)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합한 표현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이를 다시 이복동(2000)이 요인분석 하여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관계만족도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 갈등’) 총 41문항이다.

이복동(2000)의 척도는 이성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지만 하위척도의 명칭이 불만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1점(해당되지 않는다)에서 부터 5점(매우 많이 해당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불만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3을 나타내었다.

<표 2> 이성관계불만족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전반적 불만족	16	1*, 2*, 3, 6, 11, 12*, 16, 23, 25, 27, 29, 31, 32*, 35, 38, 40	.853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7	14*, 15*, 19, 21*, 24*, 34, 39*	.792
문제해결의사소통불만족	12	4, 8, 10, 13, 20*, 22, 28, 30*, 33, 36, 37*, 41*	.806
공유시간 갈등	6	5, 7*, 9, 17, 18, 26	.806
	41		.943

* 역채점 문항

C. 연구 절차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광주소재 대학교 1, 2, 3, 4학년 남, 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누락된 74부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326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내현적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뒤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응답방법 등을 설명한 후 실시 하였다. 설문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및 하위변인에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검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 모델별 Sobel test(절대값>1.96이면 유의함)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6)

변인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남	139	42.6
	여	187	57.4
연령	18세~20세	97	29.8
	21세~23세	141	43.2
	24세~26세	79	24.2
	27세~30세	9	2.8
학년	1학년	62	19
	2학년	51	15.6
	3학년	94	28.8
	4학년	87	26.7
	기타	32	9.8
이성교제경험	1회	79	24.2
	2회	82	25.2
	3회	57	17.5
	4회	45	13.8
	5회이상	63	19.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51	46.3
	자연과학계열	23	7.1
	공학계열	61	18.7
	예체능계열	20	6.1
	보건계열	44	13.5
	기타	27	8.3

피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표>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수는 남자는 139명(42.6%), 여자는 187명(57.4%)이었다. 연령은 18세~20세가 97명(29.8%), 21세~23세가 141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24세~26세가 79명(24.2%), 27세~30세가 9명으로 (2.8%)이다.

학년은 대학교 1학년이 62명(18.4%), 2학년이 51명(15.6%), 3학년이 94명(28.8%)가장 많았으며, 4학년이 87명(26.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기타(휴학) 32명(9.8%)이다. 이성교제경험 횟수로 2회가 82명(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79명(24.2%)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3회 57명(17.5%), 4회 45명(13.8%), 5회 이상 63명(19.3%)이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151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계열 23명(7.1%), 공학계열 61명(18.7%), 예체능계열 20명(6.1%), 보건계열 44명(13.5%), 기타계열 27명(8.3%)이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내현적 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의 기술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26)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내현적 자기애	123.35	21.87	205	63
평가염려 완벽주의	41.11	12.62	118	41
실수에 대한 염려	27.26	6.13	46	13
수행에 대한 의심	11.29	2.93	20	4
사회부과 완벽주의	41.1	12.62	60	17
이성관계불만족	113	24.96	196	49

3. 측정변인 및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N=326)

	1	2	2-1	2-2	2-3	3
1. 내현적 자기애						
2. 평가염려 완벽주의	.577**					
2-1. 실수에 대한 염려	.602**	.875**				
2-2. 수행에 대한 의심	.519**	.711**	.634**			
2-3. 사회부과 완벽주의	.359**	.859**	.543**	.415**		
3. 이성관계불만족	.313**	.395**	.317**	.367**	.335**	

**p<.01

주요 변인들과 주요 변인들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의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격과 종속변인인 이성관계불만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13, p<.01$).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과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577, p<.01$),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02, p<.01$). 수행에 대한 의심과도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r=.519, p<.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59, p<.0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395, p<.01$), 평가염려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317, p<.01$), 수행에 대한 의심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367, p<.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35, p<.01$).

B.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2, p<.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매개변인인 평가염려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57,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평가염려완벽주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32, p<.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3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4$). 이에 따라 내현적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0%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평가염려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7%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평가염려완벽주의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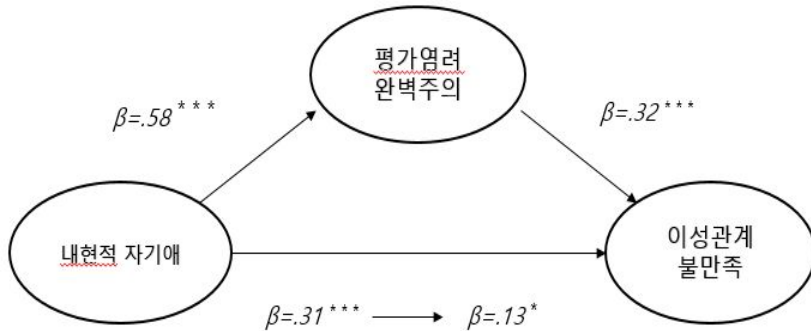
<표 6>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N=326)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36	.06	.31	5.94***	.10	35.24***
2단계 내현적자기애	평가염려완벽주의	1.00	.08	.58	12.71***	.33	161.63***
3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15	.07	.13	2.01*	.17	32.31***
평가염려완벽주의		.64	.12	.32	5.26***		

* $p<.05$, *** $p<.001$.

모형의 검증성을 높이기 위하여 Sobel-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Z값을 검증해 본 결과, Z 값이 4.0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되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여 그림 <그림 1> 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

C.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실수에 대한 염려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31, p<.001$) 첫 번째 검증 조건을 충족 시켰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61, p<.001$) 두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 시켰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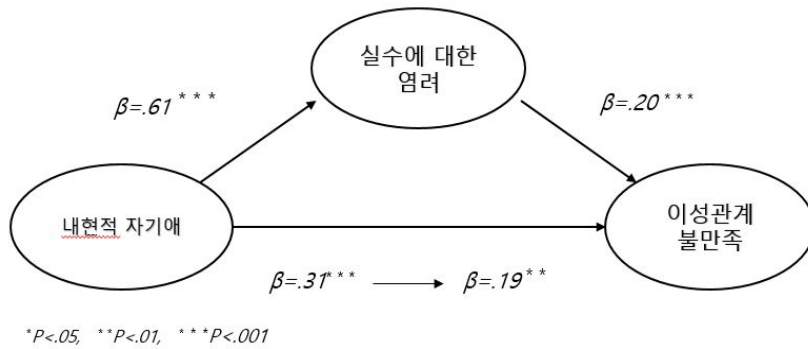
실수에 대한 염려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20, p<.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3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9$). 이에 따라 내현적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0%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실수에 대한 염려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Z 값을 검증해 본 결과, Z값이 2.9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실수에 대한 염려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되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여 그림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표 7>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매개효과 검증 결과 (N=326)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36	.06	.31	5.94***	.10	35.24***
2단계 내현적자기애	실수에 대한 염려	.17	.01	.61	13.81***	.37	190.71***
3단계 내현적자기애 실수에 대한 염려	이성관계불만족	.22 .82	.08 .27	.19 .20	2.91** 3.05***	.12	22.73**

** $p<.01$, *** $p<.001$.



<그림 2>.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의 부분 매개효과

2. 수행에 대한 의심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수행에 대한 의심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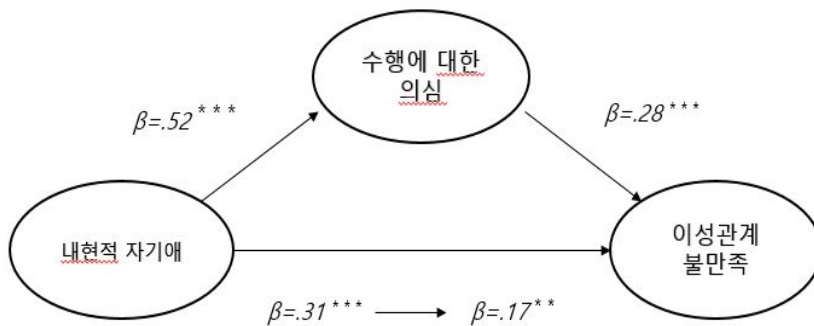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31, p<.001$) 첫 번째 검증 조건을 충족 시켰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52, p<.001$)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 시켰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28, p<.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3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7$). 이에 따라 내현적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0%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은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Z 값을 검증해 본 결과, Z값이 3.88,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행에 대한 의심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여 <그림 3> 에 제시하였다.

<표 8>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수행에대한의심 매개효과 검증 결과 (N=326)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36	.06	.31	5.94***	.10	35.24***
2단계 내현적자기애	수행에대한의심	.07	.01	.52	10.94***	.27	119.57***
3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19	.07	.17	2.81**	.15	29.64***
	수행에대한의심	2.38	.51	.28	4.67***		

** $p < .01$, *** $p < .001$.



<그림 3>.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의 부분 매개효과

3. 사회부과 완벽주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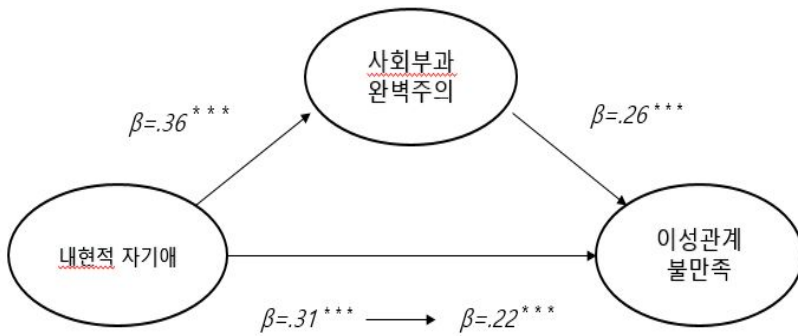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31, p<.001$) 첫 번째 검증 조건을 충족 시켰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36, p<.001$)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 시켰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므로($\beta=.26, p<.0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3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22$). 이에 따라 내현적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0%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성관계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Z 값을 검증해 본 결과, Z값이 3.58,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9> 내현적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N=326)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36	.06	.31	5.94***	.10	35.24***
2단계 내현적자기애	사회부과완벽주의	.11	.02	.36	6.91***	.13	47.80***
3단계 내현적자기애	이성관계불만족	.25	.06	.22	4.04***	.15	29.64***
사회부과완벽주의		.99	.21	.26	4.67***		

***p<.001.



<그림 4>.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

V. 결론 및 제언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주며 평가염려완벽주의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비롯하여 하위요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 개인내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대학생 상담 장면에서 보다 다루기 쉬운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계획과 개입을 제시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이성관계불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이성관계불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이성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도 관계 내에서 만족감이 적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이성관계 만족을 확인하는 선행연구(강보영, 2015; 김미선, 2014; 김지민, 2015; 최선우, 2010; 최지현, 2011; 황영주, 2013)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관심의 방향이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관계 내에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에게 비우호적이며 회피적인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정남운, 2001)와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수동적이며 적대적인 관계유형을 선택하게 된다는 연구(강연우, 2004)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내현적 자기애자가 관계 만족을 야기하는 친밀감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는 가장 친밀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성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Freud(1953)는 완벽함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자기애의 특징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고, 내현적 자기애가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과 자기 몰입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이원희, 안창일, 2005)에 대해 경험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지닌 평가와 기준에 대한 민감성과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를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비교하여 실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완벽주의 성향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 중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이성관계불만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불만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높게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안명성, 2002; 황지영, 2004; 김신나, 2005)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에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완벽주의인데 이와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김진영, 2010; 김희현, 2009; 박영주, 2013). 이성관계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에게 자기노출을 더 적게 한다는 경향이 있고(Sparrevohn & Rapee, 2009), 대학생의 이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불안은 친밀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강은숙, 박정희, 2005). 또한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인 가족, 연인, 친구관계에서 갈등회피 등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배민영, 2014)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불안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이성관계에서 친밀함을 경험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어 이성관계불만족 수준을 높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선정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

준에 부합하기 위해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취할 경우에 대인 관계상에서 사회적 회피와 불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김진영(201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역시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가설도 지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경순, 2011). 이를 내현적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예민성이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웅대한 자기를 보호하려는 내현적 자기애자는 지금의 자신보다 더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를 보상해 가려는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완벽의 추구가 부적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짙어지게 되어 과도하게 자신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 책망을 하기 쉬워지면서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수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저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행에 대한 의심은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으로 원하지만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낮은 자존감과 자신의 실수를 실패로 해석하여 무가치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실수에 대한 염려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연인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실수로 받아들이며 이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이성관계불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주(2013)의 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즉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 이라고 하였는데 사회불안은 친밀감과 부적상관을 나타내며(강은숙, 박정희, 2005), 친밀한 관계속에서 부정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것(배민영, 2014)으로 보아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취약성은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높으며,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사회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장효진, 2013에서 재인용).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며 자신을 공개하게 되었을 경우 타인을 통해 받을 것 같은 비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회적인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라는 사회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상대에게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에

서의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기능적인 완벽주의자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부각시키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거나 회피하고 언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Hewitt, & Flett, 2002).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제)과 정적상관을 보이는데(양미경, 2008; 이재연, 2004),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연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에 비해 자신이 충분치 못하고 여겨질 때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대와 수행간의 괴리에서 좌절과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Burns, 1980) 관계 속에서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을 상대에게 나타내어 결국에는 관계의 만족감을 저하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상담주제 중 이성관계 문제가 많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평가염려 완벽주의)을 알아본 연구로 이성관계 상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성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기애 유형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성관계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보거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가 선행연구의 주장이었다. 일관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에서 더 큰 불만족을 느낀다고 보고되었으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설정하여 과정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대학생이 상담 장면에서 호소하는 연인사이의 불만족을 호소하였을 때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관한 상담적 개입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평가염려 완벽주의만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이성관계불만족이 높아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위하여 이성관계불만족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적응적인 요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변인의 연구가 추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대학생들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였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응답에 의도적으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얻을 것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는 자기 보고식 이외에 객관성 있는 측정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자기애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는 해외연구(Watson, Grisham, Trotter, & Bideman, 1984, 정보아, 2000에서 재 인용)와 정보아(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자기애 성향이 높다고 하였고, 홍영미(2007)는 남자보다 여자가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 최지현(2011)은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의 성차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내현적 자기애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렇듯 일관되게 결과를 언급 하지 않아 일관된 결과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이성관계만족도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후 연구(김미선, 2014; 김지민, 2015)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차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각 변인의 성차와 두 변인 간의 관계의 성차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V. 참고 문헌

- 강보영 (2015).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880.
- 강은숙, 박정희 (2005).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남녀 대학생의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 가족과 가족치료, 13(2), 149-636.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경 (2011). 내현적 자기에와 편집성향간의 관계: 자존감과 분노표현양식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에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곽소영 (2007). 이성 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자율성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에적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학지사.
-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란 (1993). 대학생의 이성교제와 대학생활 적응. 가정관리연구, 12, 1-1-117.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미치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23-247.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성관계 불만족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호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연신 (2015). 중년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 완벽주의와 반추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가해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27-42.
- 김정은, 손정락 (2012). 수용전념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49-771.
- 김정화 (201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진영 (2010).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현아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하여-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83-205
- 김현희, 김창대 (2011).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 평가염려·개인기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 박세란 (2003).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준영 (2007). 자기애,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공격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규환 (2002). 개인주의 확산의 사회적 환경과 그 영향. 사회과학연구, 15, 297-313.
- 배민영 (2014). 사회불안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기술, 자기노출, 친구관계의 중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은경. (2011). 슈퍼마이지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설미향, 이윤형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1-17.
- 안신혜 (2009).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열등감 및 대인관계 적절성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8). 초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투자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6(1), 87-101.
- 이문선, 이동훈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3(3), 609-625.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운, 최정훈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향순, 정남운. (201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인간이해*, 33(2), 199-216.
- 임원범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2004).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혜진 (1996).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아 (2000). 대학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최선우 (2010). 이성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이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현 (2011). 대학생의 성별 및 자기애 성향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 (2009).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상호 (2016). 중등교사의 내현적 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경 (2000).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형진 (2015). 장애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인형, 김영희 (2009). 대학생의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 관계의 질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05-124.
- 한수정 (1998).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내재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홍대식 (1998).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영미 (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주 (2013). 자기에 성향자의 연애타도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 J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ldea, M. A., & Rice, K. G.(2006).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53, 498-51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47-178.
- Bercheid, E., Snyder, M., & Omoto, A. (1989).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losenes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63-91.
- Björn Mayer, Paul A. Pilkonis (2011). A Historical Review of narcissism and narcissismtic personalty In Campbell, W.K., Miller, J. D.(Eds).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hreatment* (pp. 434-444). New Jersey: Wiley & Sons.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
- Blatt, S. J., Zuroff, D. C., Bondi, C. M., Sanislow III, C. A., & Pilkonis, P. A. (1998). When and how perfectionism impedes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further analys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42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 Analysis.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2(4), 964-98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mter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ne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Roth, C., Balacj, L. et al. (1993).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79-187.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ampbell, W. K.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54-1270.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s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 s y chology*, 47, 129-137.
- Cole, I. (1948).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Rinehart.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owell, J. A., Fraley, R. C., & Shaver, P. R. (1999).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and adult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434-465). New York: Guilford Press.
- Davis, M. H., & Franzoi, S. L. (1987).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elf-disclosure. In *Self-Disclosure* (pp. 59-79). Springer US.
- Di Schiena, R., Luminet, O., Philippot, P., & Douilliez, C. (2012). Adaptive and

-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depression: Preliminary evidence on the role of adaptive and maladaptive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774-778.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
- Enns, M. W., & Cox, B. J.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8), 783-794.
- Eri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oricis*. New York: W. W. Norton.
- Feintuch, B. (1998). *Adult attachment, narcissism, shame, and defensiveness*. Unpublished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Solnik, M., & Van Brunschot, M. (1996). Perfectionism,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4(4), 245-274.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ett, G. L., Russo, F. A., & Hewitt, P. L.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constructive thinking as a coping respon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2(3), 163-179.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eimberg, R. G., Holt, C. S., Schneier, F. R., Spitzer, R. L., & Liebowitz, M. R.(1993). The issue of subtypes in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249-269.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 (1988). Romantic relationship: love, satisfac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980-98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 Hill, R. W., Zrull, M. C., & Turlington, S. (1997).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1), 81-103.
- Holahan, C. J., Moos, R. H., & Bonin, L. (1997). Social suppor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pp. 169-186). Springer US.ISO 690
- Joyner, K. & Udry, J. R. (2000). You don't bring me anything but down: Adolescent rom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369-391.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403-410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167-178.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4), 347-358.
- Kohut, H.(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Connecticut: International Universities

- Press.
- Lars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returns*. New York; Norton.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Y: Knopf.
- McWilliams, N. (정남운, 이기런 역, 2008). *정신분석적 진단*. 서울: 학지사. (원저 1979 출판).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43-165). New York: Guilford.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style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Style of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alationships*, 6(4), 505-51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ichard Winter. (2007).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 (김동규 역). 서울: IVP(월전2005).
- Santanello, A. W., & Gardner, F. L. (2007).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3), 319-332.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0).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Slade, P. D., & Owens, R. G. (1998). A dual process model of perfectionism based on reinforcement theory. *Behavior modification*, 22(3), 372-390.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 59-48
- Spanier, G. & Lewis, R.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25-839.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4), 219-22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New York.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r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Wilson-Shockly, S. (1995).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The contribution of negative a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ampaign, IL, USA.
- Wink, P. (1991a). Self-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1), 769-791.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olfe, D. A. & Feiring, C. (2000). Dating violence through the lens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Child Maltreatment, 5*, 360-363

<부록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 다음 문항들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평소 자신을 떠올리면서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 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 2>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하나만 골라서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1	2	3	4	5
2	만일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4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나에게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1	2	3	4	5
5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있다.	1	2	3	4	5
6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7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1	2	3	4	5
8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나는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1	2	3	4	5
9	내가 항상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0	일상생활의 간단한 일도 잘 마무리 되지 않은 것 같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2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1	2	3	4	5
13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쉽게 인정한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내가 일을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1	2	3	4	5
17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바라볼 것이다.	1	2	3	4	5
18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을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19#	내가 모든 일을 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20	일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21#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22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드러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1	2	3	4	5
24	우리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부모님은 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26	사람들은 나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한다.	1	2	3	4	5
27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28#	내가 실수를 할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3> 이성관계불만족도 척도

◎ 아래의 문항들은 현재 본인과 본인의 이성친구가 맺고 있는 관계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어느 쪽도 아니 다	조금 해당 된다	매우 많이 해당 된다
1	나는 우리의 이성교제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내 파트너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우리는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지 않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파트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친구에게 대신 이야기 한다.	1	2	3	4	5
5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7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8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1	2	3	4	5
9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10	내 파트너에게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1	2	3	4	5
11	때때로 나는 파트너를 몹시 떠나고 싶었다.	1	2	3	4	5
12	내 파트너는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1	2	3	4	5
13	우리는 다룰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1	2	3	4	5
14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내 파트너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15	나는 파트너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어느 쪽도 아니 다	조금 해당 된다	매우 많이 해당 된다
16	내 파트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서 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7	내 이성교제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1	2	3	4	5
18	우리 관계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9	내 파트너는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20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1	나는 단 한순간도 우리 만남을 후회 한 적이 없다.	1	2	3	4	5
22	내 파트너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우리 관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1	2	3	4	5
2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매우 많다.	1	2	3	4	5
25	내 이성교제관계에는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1	2	3	4	5
26	나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27	내 파트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1	2	3	4	5
28	나는 내 파트너에게 항상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29	우리는 지금보다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1	2	3	4	5
30	내 파트너는 내가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 항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어느 쪽도 아니 다	조금 해당 된다	매우 많이 해당 된다
3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1	2	3	4	5
32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1	2	3	4	5
33	내 파트너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종종 큰 다툼으로 발전한다.	1	2	3	4	5
34	만일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1	2	3	4	5
35	나는 때때로 우리 만남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1	2	3	4	5
36	나는 때때로 우리 만나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1	2	3	4	5
37	우리는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1	2	3	4	5
38	때때로 나는 파트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	2	3	4	5
39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인들보다 더 행복하다.	1	2	3	4	5
40	내 파트너는 때때로 내 성격의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1	2	3	4	5
41	내 파트너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